

황의조 “아시안컵, 성장 기회 됐으면”



최고의 한 해를 보낸 축구대표팀 공격수 황의조(가마 오사카)가 내년 1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황의조는 12일 울산종합운동장에서 훈련을 앞두고 “새해에 열리는 첫 대회다. 개인적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야 더 좋은 무대, 그리고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아시안컵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감사한 한 해”라고 할 만큼 황의조에게 2018년은 특별하다. 근거 없는 특혜 선발 논란에 휘말렸던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강한 정신력으로 극복해 진기를 발휘했다.

비레인과의 조별리그 첫 경기부터 헤트트릭을 기록하며 논란을 잠재웠다. 아시안게임에서 무려 9골을 터뜨리며 득점왕과 금메달이

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새롭게 파울루 벤투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도 황의조의 골 감각은 식지 않았다. 10월 우루과이, 11월 호주와 우즈베키스탄과의 평가전에서 1골씩 3골을 기록했다.

벤투호에서 불박이 원톱으로 자리를 굳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아시안컵 최종엔트리 승선이 확정적이다.

황의조는 “아시안게임 때만 해도 이런 자리에 서는 게 두려웠다. 지금도 똑같지만 그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성장할 수 있었다”며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수가 되는 게 중요하다. 이 기운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호주를 우승 경쟁 상대로 꼽은 황의조는 “아시안컵은 큰 대회다. 준비를 잘 했지만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 스포츠”라며 “함께 잘 준비하면 그 속에서 좋

벤투호 불박이 원톱 자리매김 확실시

“유럽 진출, 선수라면 갖고 있는 꿈”

은 경기를 하고 많은 골도 넣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랬으면 좋겠다”고 했다.

올해 일본 프로축구 J리그 2년 차를 맞은 황의조는 리그에서 16골을 몰아치며 득점부문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컵 대회까지 포함하면 무려 21골이다.

유럽 진출과 관련해선 “선수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는 꿈이다. 기회가 있다면 당연히 도전해 보고 싶다”고 했다. 다음은 황의조의 일문일답

▶생애 최고의 한 해를 보낸 것 같은데.

“충분히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 많은 일들이 있었다. 감사한 한 해다.”

▶아시안컵은 어떤 의미인가.

“새해에 열리는 첫 대회다. 개인적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야 더 좋은 무대, 그리고 더 큰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시안컵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올해의 선수 후보인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주선다면 당연히 감사하게 받겠지만 욕심이 나거나 그런 건 없다.”

▶올해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논란의 주인공이었는데.

“아시안게임 때만 해도 이런 자리에 이렇게 서는 게 두려웠다. 지금도 똑같지만 그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성장할 수 있었다.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선수가 되는 게 중요하다. 이 기운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여기서 더 성장하면 유럽에 진출하는 것인가.

“선수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는 꿈이다. 기회가 있다면 당연히 도전해 보고 싶다.”

▶중동에서 열리는 아시안컵이다. 부담이 되나.

“아시안컵은 큰 대회다. 준비를 잘 했지만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 스포츠다. 함께 잘 준비하면 그 속에서 좋은 경기를 하고 많은 골도 넣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랬으면 좋겠다.”

▶아시안컵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어디로 보나.

“아무래도 호주라고 생각한다. 피지컬 스피드, 개인기 모두 좋다. 평가전이었지만 한 번 해 보니 확실히 좋은 팀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차준환, ‘차근차근’ 강조하는 이유

부상에 고전한 지난 시즌 교훈… “급하게 기술 늘리지 않을 것”

한국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사상 최초로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시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메달을 수확, 한국 남자 피겨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남녀 싱글을 통틀어 그랑프리 파이널에 진출한 것도, 메달을 딴 것도 ‘피겨여왕’ 김연아가 2009년 12월 2009~2010시즌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우승한 이후 9년 만이다.

시니어 무대 데뷔 시즌인 2017~2018시즌 2018 평창동계올림픽 파이널은 큰 무대를 경험한 것이 기록제가 됐다.

성장세는 가파르지만, 차준환은 욕심을 내지 않는다. ‘차근차근’을 되뇌인다. 부상에 시달리며 고전한 지난 시즌 커다란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다.

차준환은 발에 잘 맞지 않는 부츠를 신고 4회전 점프 훈련을 강행하다가 오른 발목과 왼쪽 고관절 부상을 입었다. 시즌 내내 차준환에게는 부상 악령이 따라다녔다. 부상으로 인해 평창올림픽 출전권도 놓칠 뻔했다.

차준환이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 틈바구니에서 한층 경쟁력을 갖추려면 쿼드러플 살코, 쿼드러플 토티프 외에 다른 4회전 점프를 장착하는 것이 숙제다.

하지만 이 또한 ‘차근차근’ 하는 것이 목표다. 차준환은 “더 큰 선수로 성장하려면 더 높은 기술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지난 시즌에 호되게 배운 것이 있다”며 “급하게 무리해서 기술을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나의 페이스에 맞춰서 차근차근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급하게 가다보면 부상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 발전하기보다 정체하거나 뒤로 물러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남자 싱글 선수로는 최초로 시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출전권을

거머쥔 차준환은 ISU 공인 개인 최고점인 263.49점을 얻어 동메달을 수확, 한국 남자 피겨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남녀 싱글을 통틀어 그랑프리 파이널에 진출한 것도, 메달을 딴 것도 ‘피겨여왕’ 김연아가 2009년 12월 2009~2010시즌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우승한 이후 9년 만이다.

시니어 무대 데뷔 시즌인 2017~2018시즌 2018 평창동계올림픽 파이널은 큰 무대를 경험한 것이 기록제가 됐다.

성장세는 가파르지만, 차준환은 욕심을 내지 않는다. ‘차근차근’을 되뇌인다. 부상에 시달리며 고전한 지난 시즌 커다란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다.

차준환이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 틈바구니에서 한층 경쟁력을 갖추려면 쿼드러플 살코, 쿼드러플 토티프 외에 다른 4회전 점프를 장착하는 것이 숙제다.

하지만 이 또한 ‘차근차근’ 하는 것이 목표다. 차준환은 “더 큰 선수로 성장하려면 더 높은 기술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지난 시즌에 호되게 배운 것이 있다”며 “급하게 무리해서 기술을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나의 페이스에 맞춰서 차근차근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급하게 가다보면 부상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 발전하기보다 정체하거나 뒤로 물러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남자 싱글 선수로는 최초로 시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출전권을

박항서의 베트남, 스즈키컵 결승 1차전 말레이시아와 2:2 비겨

먼저 2골 넣었지만 동점 허용 오는 15일 홈에서 2차전 겨

‘잘린’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가 동남아 국가대항전인 스즈키컵에서 10년만의 정상 탈환에 한걸음 다가갔다. 원정 결승 1차전에서 비겼다.

박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은 11일(한국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부킷 잘릴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18 아세안축구연맹(AFF) 스즈키컵 결승 1차전에서 말레이시아와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응우옌후이흥, 팜득후이의 연속 골로 2-0으로 앞섰지만 내리 2골을 내줘 원정 승리에 실패했다.

그러나 원정 득점 원칙이 적용되는 홈&어웨이 방식에서 원정 2골은 베트남에 긍정적이다. 2008년 이후 10년 만의 우승을 기대해도 좋은 상황이다. 또 베트남은 A매치 1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갔다. 7승8무다.

베트남은 15일 안방인 베트남 하노이의 미딘 스타디움에서 말레이시아와 결승 2차전을 갖는다.



베트남 축구대표팀 응우옌 후이흥(가운데)이 11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부킷 잘릴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스즈키컵 결승 1차전 전반 22분 선취골을 기록, 환호하고 있다.

자연의 숨겨진 보물 창고

■ 숲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신정,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라북도 구례군은 지리산은천, 칠새마을, 화연사, 설진강, 운조루, 파야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물어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